

		<h1> 보도자료 </h1>	
보도일시	2017. 12. 4(월) 11:00 이후	담당부서	특수교육정책과
배포일시	2017. 12. 1.(금)	담당과장	이한우(044-203-6569)
대변인실	044-203-6588	담당자	연구관 정은영(044-203-6563) 연구사 김선미(044-203-6562)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‘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(’18~’22) 계획’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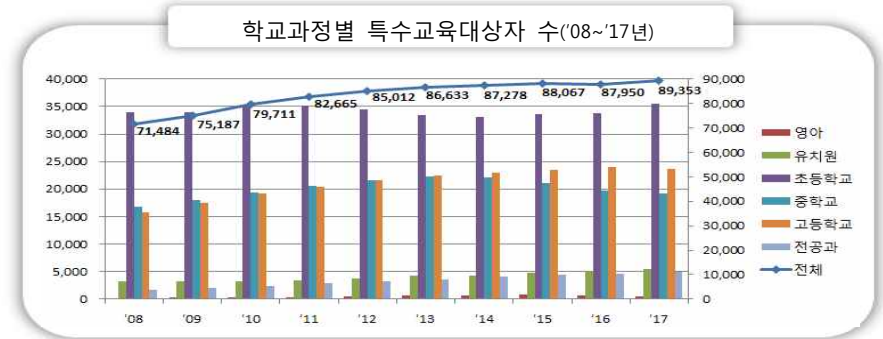
- ’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 특수학급 1,250학급 신설 및 특수교사 확충
- 통합교육 내실화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와 치료지원전담팀 운영
-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교육부 특수교육 전담조직 확대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)는 12월 4일(월)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‘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(’18~’22) 계획’을 발표하였다.

○ 이번 계획은 “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”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.

□ 지난 제4차 계획 동안 유초·중고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및 전공과 과정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*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* 특수교육대상자 수(명): (’13) 86,633 → (’15년) 88,067 → (’17년) 89,35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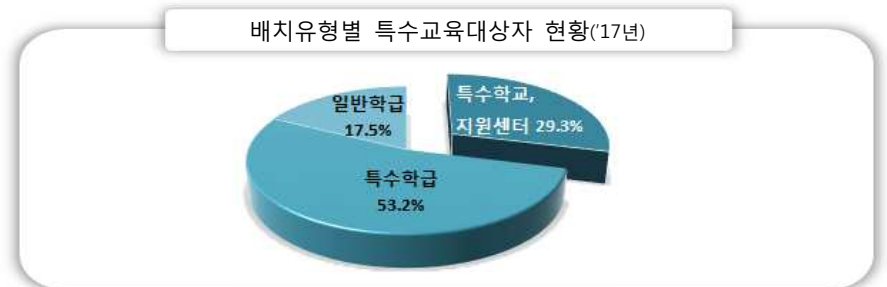


○ 이에,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(급) 확충이 필요하나,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.

○ 또한, 특수교육대상자의 71%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*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,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,

* 일반학교 63,154명(70.7%),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6,199명(29.3%)

- 장애인의 고등·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등·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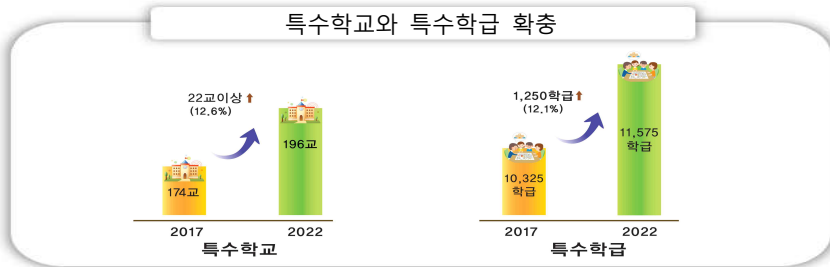


□ 이번 ‘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(’18~’22) 계획’은 그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,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·도의 장애학생 부모, 교원,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분야,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.

①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

- (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) '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교 이상, 특수학급 1,250학급 신·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한다.

※ 특수학교·특수학급: ('17) 174교, 10,325학급 → ('22) 196교, 11,575학급



- 이를 위해,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*을 추진하고, 대학 부속 특수학교**,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.

*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등 개정 추진

** 특수교사 양성 대학(국립 6교, 사립 33교) 중 부속학교 8개(국립은 없음)

- 특히,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·도에 1개 이상 통합유치원* 설립을 추진한다.

*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하여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 교수 형태로 운영하며,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:1로 운영

- (특수교사 증원) '17년 현재 67.2%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'22년까지 대폭 확충한다.

- 이로써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, 특히, 중도·중복장애 학생 지원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- (특수교사 전문성 신장 등 지원)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연 4,000명 이상 연수를 확대하고,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.

②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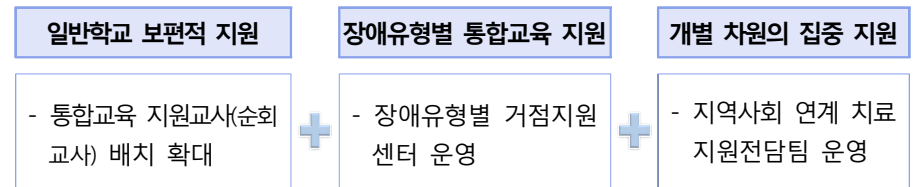
- (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) 특수교육대상자의 71%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, 지원을 강화한다.

-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, 시각·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확대* 운영한다.

*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: ('17) 42개소 → ('22) 50개소

- 또한,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,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*을 운영하는 등 특수교육·치료지원 연계망을 구축한다.

*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,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운영('22년까지 50팀 이상)



- (장애·비장애학생 통합교육 운영 내실화) 특수교육대상자 1인 1기(技)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교육기관을 확대*한다.

*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: ('17) 40개 → ('22) 80개

- 또한, 장애·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* 프로그램 및 스포츠 클럽 운영을 확대하고,

* 장애·비장애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훈련 또는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(통합축구, 통합농구, 통합볼링 등)

-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해 '정다운 학교*'를 운영한다.

* 정다운학교 운영: ('18) 17교 시범운영 → ('22) 85교

- (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 내실화) 중도·중복장애 학생의 시설 접근성, 이동 편의성,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 지원을 강화하고,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망을 구축한다.

- 아울러,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장애 학생의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중재를 위한 지원을 다양화하고,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병원학교, 원격수업 등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.
- (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) 일반학교 관리자*와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 운영한다.
- * 일반학교 관리자는 매년 집합연수(워크숍) 3시간 이상 이수
- 또한, 예비교사의 통합교육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습 시, 통합 교육 관련 교육실습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.

③ 진로 및 고등·평생교육 지원 강화

- (진로교육 활성화)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'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하고,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한다.
- 이를 위해,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(184교)에 배치하고, 교육·복지·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윈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*를 구성·운영한다.
- * 윈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: ('19) 5개 → ('22) 17개
- (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) 장애대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,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를 확대*하고, 장애대학생 진로·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를 6개 운영한다.
- * 전문도우미 수: ('17) 140명 → ('22) 200명
- (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)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,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·운영을 통해 관계부처(기관)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.
- 특히,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을 강화한다.
- ※ ('18)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 개발 연구 → ('19)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→ ('20~'22) 전국 확대 운영



④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

- (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) 유·초·중·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로 강화하고,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중 추진한다.
- (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) '장애학생인권지원단*' 기능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(성)폭력 피해를 예방한다.
- * 장애학생인권지원단: 관할경찰서 성폭력 담당자, 장애학생 보호자, 성교육 및 상담 전문가 등 최소 8명으로 구성되며, '17년 현재 전국에 201개단 운영 중
- 그리고, 교육부의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1과 1팀으로 확대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.

현 상황	제5차 계획
▶ (특수학교 설립) '제4차 계획' 추진 동안 신규 특수학교 17개교 설립	▶ 특수학교(급) 확충 - 특수학교 최소 22교 이상 신설(특수학급 1,250학급 산증설) ▶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▶ 특수학교(급) 설립 다양화·특성화 추진
▶ (특수교사) '17년 공립 특수교사 배치율 67.2%	▶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보장을 위해 부족한 특수교사 대폭 확충 추진 ※ '18년 특수교사 정원 1,173명 확보
▶ (통합교육)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벗어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부족	▶ 통합교육 지원체제 내실화 중점 -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확대(50개) -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치료 지원전담팀 운영(50개)
▶ (평생교육)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제 미비	▶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▶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
▶ (지원체제)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	▶ 교육부 특수교육 전담조직 1과 1팀으로 확대

- 교육부는 ‘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(18~22) 계획’의 세부 과제별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함으로써 기본 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- 김상곤 부총리는 “문재인 정부의 ‘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’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,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‘권리’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.”라고 하였다.
 - 아울러, “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”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,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1. ‘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(18~22) 계획’ 요약 자료
2. 2017 특수교육 주요 현황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정은영 교육연구관(044-203-6563), 김선미 교육연구사(044-203-65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‘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’ [요약]

I. 추진 배경 및 경과

1 추진 배경

- 국정과제 등 ‘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’라는 국정기조를 담은 새로운 5년(18~22)의 특수교육 발전방향 제시

【국정과제】 51.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

- ② (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)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(급) 확대, 통합교육 지원교사(순회교사) 배치
- 장애대학생 진로·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,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강화

2 추진 경과

- 17개 시·도교육청의 장애학생 부모, 교원,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 순회 의견수렴 실시(1차 '16.4.~7., 2차 '17.4.~7.)
- ‘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연구’ 추진('16.2.~11.)
- 제5차 계획의 추진방향, 중점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등 자문('17.9.) 및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(1차 '17.9.25., 2차 '17.10.25.~10.31.)
- 관계부처(기관), 부내 및 시·도교육청 의견수렴('17.10.~11.)

II. 그간의 노력 및 성과

1 ‘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’ 추진 개요

- ‘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’을 비전으로 4대 분야, 11개 중점과제, 125개 세부과제 추진

- (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제고) 장애영유아교육의 내실화,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,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
- (특수교육 지원 고도화) 장애발견 진단·배치 체계 고도화,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,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
- (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)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,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
- (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) 장애학생 진로·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강화,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

2 추진 성과

-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여건 조성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
 - 유치원 특수학급 387개 신·증설 및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(53개 유치원 21개 특수교육지원센터) 지정·운영
 - 중도·중복장애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강화 노력
 - 중도·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생활기능영역별 교수·학습자료 개발·보급
 - ※ ('14) 의사소통 4종 → ('15) 자립생활 4종 → ('16) 탐구 4종 → ('17) 신체활동 2종
 - 시·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교과서* 개발 및 대체교과서 발행·공급 지원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·학습자료 개발·보급
 - * ('13) 초등 음악 → ('15) 초등 국어 → ('16) 초등 영어 → ('17) 초등 교과별 핵심어휘 사전
- 장애유형·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
 -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,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가족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
 - ※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: ('12)9,983명 → ('17)11,170명
 - 「특수학교 시설·설비 기준령」 개정('17.12.5.)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·설비 기준 강화

- '장애학생인권지원단' 조직·운영 등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
 - * 2017년 전국 201개 인권지원단(총 2,247명)에 334명의 경찰위원이 필수위원으로 참여
 - 「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'12~'16)」에 대한 국민점검단의 점검 결과, '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' 정책이 모범적 사례로 선정
 - 시·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38개소 지정·운영을 통해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시·청각장애학생 지원 강화
- 특수교육대상자의 졸업 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
 -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*와 특수학교 학교기업** 확대 및 운영 내실화
 - *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: ('12) 30교 → ('17) 48교
 - ** 특수학교 학교기업: ('12) 20개 → ('17) 28개
 -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의무 실시
 - ※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수: ('12) 2,494명 → ('17) 3,000명
 -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「평생교육법」 개정('16.5.29.)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

3 한계 및 시사점

- 특수교사 배치율이 67%에 불과하고,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신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
 - 특수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, 특수학교 신설 시,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 공간 포함·조성 등 발전적인 학교 설립 방안 모색 필요
-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증진 필요
 - 인권보호 수준을 넘어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정책 추진 필요
- 교사 역량에 따른 통합교육의 질적 격차 등으로 통합교육의 효과성 저하
 -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등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
- 장애인 평생교육은 수혜자가 '장애성인'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지원 사업 축소 및 변경
 - 「평생교육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극적 이행 조치 필요

Ⅲ. 제5차 계획의 비전과 목표

비전

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
성공적 사회통합 실현

목표

- ▶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
- ▶ 가정, 학교,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
- ▶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

추진 과제

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

-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
-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
-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확대

2 통합교육 및 특수 교육 지원 내실화

-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
-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
-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 내실화
-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

3 진로 및 고등·평생 교육 지원 강화

-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·발전
- 진로·직업교육 전문화
-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
-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

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

-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
-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

추진 체계

가정-학교-사회 간, 관계부처(기관) 간
종합적·체계적 지원체제 구축

Ⅳ. 주요 추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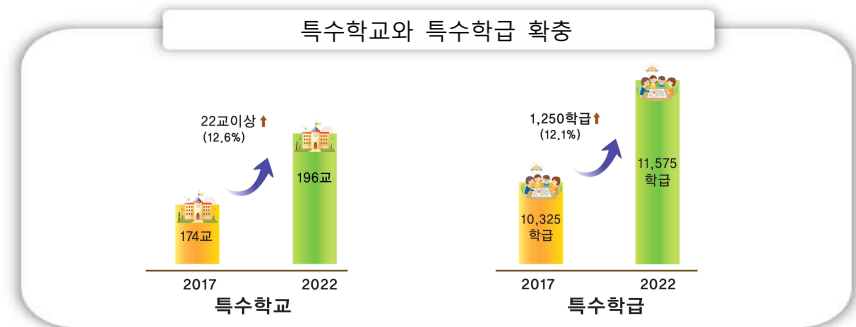
1

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

① 특수교육기관 확충

□ 특수학교(급)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

-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(급) 중장기 신·증설 계획 수립
- (특수학교) '17년 174교에서 '22년 196교로 최소 22교 이상 추가 설립 추진
- (특수학급) '17년 10,325학급에서 '22년 11,575학급으로 1,250학급* 확충
- * 유치원 400학급, 초·중·고 850학급



□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
- 사·도교육감이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,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* 개정 검토
- *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: 특수학교 우선 승인하는 내용 포함
-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: 특수학교 우선 반영 내용 추가
- 특수학교 설립 시, 학교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* 개정 추진
- *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: 원활한 용지 확보를 위해 특수학교 포함

- 신설 특수학교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, 도서관, 공연실 등 복합공간을 포함하는 등 **상생하는 학교 설립** 확대

- 특수학교 신설 시, **복합공간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비 교부기준 상향 조정**

□ 특수학교(급) 설립의 다양화 · 특성화

- 유아단계 특수교육 **활성화**를 위해 17개 시·도에 1개 이상 **통합유치원*** 설립 추진

* 등원부터 하원까지 **모든 일과를 완전 통합하여**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**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**하며,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:1로 운영

- 12학급 이하의 **작은 규모** 특수학교, **특화된 분야의 교육***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등 **설립 추진**

* 특성화 고등학교(특수교육대상자 대상)와 같은 직업교육 중점모델 등

※ **학교 규모에 따라 부지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** 가능하도록 「**특수학교시설·설비기준령**」 기준면적 개정

- **대학 부속 특수학교, 병원 내 특수학교**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추진

※ 특수교사 양성 대학(국립 6교, 사립 33교) 운영 중 부속학교 8개(국립은 없음)

- **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**

- 중도·중복장애, 시·청각장애 등 **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**를 위한 **특수학급 설치·운영**

- **예술, 체육,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**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**특성화된 학급 설치·운영**

※ '17년 현재 고등학교에서 **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**(통합형 직업교육 거점 학교 48교)을 운영 중이며, 예술·체육 분야에도 확대 추진

②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

□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 대폭 확충

-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**특수교사 확충 추진**

※ 관계부처(행정안전부, 기획재정부)와 긴밀한 협력 추진

☞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**통합교육** 및 **중도·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** 기대

□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

-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**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·운영**
 - 시·도교육청별, 단위 학교별 **교사학습공동체** 조직을 통해 수업과 교육과정을 함께 연구하면서 교실 수업 개선 풍토 조성

※ 17개 시·도교육청에 교사학습공동체 구축·운영 등을 위한 지원 확대

- **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* 지도 역량 강화**를 위해 **연 4,000명 이상 연수 확대**

* (시각장애) 점자지도 및 보행훈련 지도, (청각장애) 교육용 수화언어능력 평가 인증, (지체장애) 자세와 감각, 운동 영역 지도, (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) 문제행동 지도 등

※ 연수 이수 인원: ('18~'22) 21,000명

□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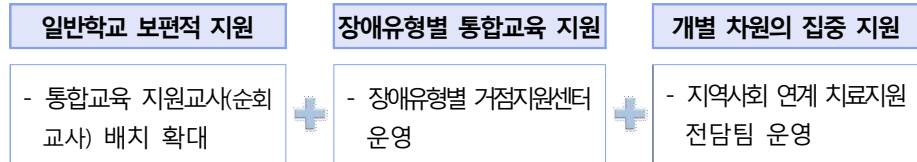
- 특수교육교원의 **교육활동 보호**를 위한 지원 확대
 - 교육(지원)청에 설치된 **교원치유지원센터*** 연계, 시·도교육청 단위 **의료기관 및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, 법률 상담** 등 지원

* ('17) 17개 시·도교육청에서 1개소씩 운영

- 특수교육교원의 **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**

- 교육(지원)청 및 학교 단위 **개인상담, 집단상담, 치유캠프 등 다양한 유형의 심리상담 지원**을 통해 **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** 지원 확대

□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



-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71%가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

- 일반학교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해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, 학급 정원 감축* 등 지원 강화

*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정원 1~3명 감축

-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

- 시각·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행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, 운영 내실화 추진

-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를 위해 '치료지원전담팀' 운영

-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,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*을 '22년까지 50개 운영

* (역할) 자신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, 담당 교사 및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

-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-치료지원 연계망 구축

- 학교가 의료기관,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, 대학,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

* (사례) N특수학교는 학교 인근 대학의 언어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특수교육과 교수, 소아과병원 의사, 가족상담센터의 상담전문가 등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개별화 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

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

- 학교 단위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- 단위 학교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교 1특화프로그램* 추진
- *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(급) 규칙 만들기 및 생활수칙 실천 운동 등
- 특수교육대상자 1인 1기(技),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교육기관 확대

※ 거점 교육기관: ('17) 40개 → ('22) 80개

- 장애·비장애 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스포츠* 프로그램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

* 장애·비장애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훈련 또는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(통합축구, 통합농구, 통합볼링 등)

- 특수교육대상자의 체육활동 기회 증진 및 지역사회 교류 확대를 위한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확대

※ (사례) B고등학교 C&C Eco 통합축구동아리, K특수학교 해피프렌즈어울림 농구단 운영 등

- 토요스포츠클럽, 스포츠 재능반, 동계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장애 유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체육활동 강화

해외 사례

【미국】 1983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시작된 통합스포츠 프로그램은 1988년 스페셜 올림픽에서 볼링, 소프트볼, 배구경기가 공식 종목으로 채택됨. 이후 1991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첫 국제대회인 세계하계경기(World Summer Games)가 개최되었고,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2년 기준 약 618,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국제운동으로 성장

-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

- 통합교육 지원교사 우선 배정으로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·운영

※ '18년부터 특수·일반교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'정다운학교' 17교 운영 및 '22년까지 85교로 확대

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교육·돌봄 체계 구축

-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 내 공공 돌봄 인프라 활용을 통해 실질적·통합적인 방과후 교육·돌봄 지원체계 구축

□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 내실화

- (중도·중복장애 학생) 시설 접근성,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
 -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, 심리안정실 구축, 학급 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등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
 - (학습장애 학생) 다양한 교육적 배치 상황에서 학습장애 학생 교육 지원 모델 발굴·보급
 -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중재를 위해 스마트 기기 등 학습보조기 활용*, 방과후학교 등 지원 다양화
- * '17년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, 학습장애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학습보조기지원(25.7%)과 상담지원(15.5%)으로 나타남
- (건강장애 학생) 병원학교, 원격수업 등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적기 제공
 -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장애 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

□ 교원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

-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
 - 일반학교 관리자*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
- * 일반학교 관리자는 매년 집합연수(워크숍) 3시간 이상 이수 권장
- 관리자, 일반교사, 특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연수 콘텐츠 개발·운영
- ※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혼합과정(blended learning) 권장
-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 교원의 장애공감문화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원격 연수 운영
-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
 - 초·중등학교 예비교사 교육실습 시, 통합교육 관련 교육실습 적극 권장

3

진로 및 고등·평생교육 지원 강화

□ 특수학교 진로교육 활성화

-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활동 및 미래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
 - ※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: ('18) 46교 → ('22) 139교
 - 특수교육대상자의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, 기업 연계 지역단위 진로체험지원체계 및 협의체 구성 확대
 - ※ (사례) 대구광역시교육청·대구광역시청·대구대학교 간 진로체험지원 협의체 구성, CGV 등 민간기관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진로·문화체험활동 확대 등
 - 교육·복지·고용 협업시스템* 구축으로 진로·직업교육 효율화·안정화 도모
 - * 관계부처 간 장애학생의 직업평가·직업교육·고용지원·사후관리 서비스 연계 강화
 -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* 구축
 - * 전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('16년 17개소), 직업재활센터('16년 34개소)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
 - ※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: ('19) 5개 → ('22) 17개
 - 진단 및 직업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
 - ※ (고용노동부 연계) 학교 내 일자리 →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사업으로 확대 (보건복지부 연계) 특수교육·복지 연계형 일자리 → 장애청소년일자리사업으로 확대
 -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
 - 특수학교(중등과정 이상)에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* 배치를 위한 「진로교육법 시행령」 개정 및 「진로진학상담」 부전공 자격연수 추진
 - ※ 특수학교(중등과정 이상 운영교) 진로전담교사 배치: ('20) 40교 → ('22) 184교 전체
- *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「진로진학상담」 과목으로 표시된 교사자격증을 갖춘 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교사

□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

- 장애대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수·학습 지원 강화
 - 장애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수화통역사,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 배치 확대
 - ※ 전문도우미 수: ('17) 140명 → ('22) 200명
 - 대학 '장애학생지원센터' 내 전문인력* 확보 및 정규인력 배치를 통한 운영 내실화
 - * 특수교육, 사회복지, 상담심리 등 관련 전공자 채용
 - 국립장애인도서관 연계 시각장애 대학생 대체교재 제작 및 보급
- 장애대학생 진로·취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 다양화
 - 장애대학생 진로·취업교육을 지원하는 권역별 거점센터* 6개 운영
 - * (역할) 장애대학생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취업 관련 정보 확보 및 취업체 발굴·연계, 각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우수 모델 확산 등
 - 우수 장애대학생에게 장학금 및 취업기회 제공, 해외 연수기회 확대 등 지원 다양화
-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를 위한 대학 환경 조성
 - 대학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 실시
 - ※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제2항('15.12.29.신설): 대학의 장은 소속 직원·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 - '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' 제도 내실화 및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관련 정보 제공 확대
 - * 대학알리미(www.academyinfo.go.kr), 대입정보포털 '어디가'(www.adiga.kr), 전문대학 포털(www.procollege.kr) 등 활용
-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체계 내실화
 - 대학 지원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확보

□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

-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
 - (국가)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, 행정기구, 전담·지원기구, 심의·협의기구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
 - (시·도) 지역 실정을 감안한 '시·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' 수립,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의회 활성화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충·운영
 - (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)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,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,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·연수 등
-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* 교육지원 강화
 - * '14년 조사(보건복지부) 결과, 등록 장애인 250만여 명 중 약 60%인 140만여 명이 중졸 이하
 -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 및 지원 확대
 - ※ ('18)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 개발 연구 → ('19)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→ ('20~'22) 전국 확대 운영
 -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·보급을 통한 학력보완 기회 제공
 - 방송통신중·고등학교를 통한 장애인 교육지원 확대 방안 마련
 -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확대도 병행 추진
-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·지원 확대
 - 기존 평생교육기관,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,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평생 교육 접근성 제고
 - ※ 프로그램 수: ('18) 650개 → ('22) 1,130개 (5년간 73% 이상 대폭 확대)
 - 장애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
 - ※ 지역 여건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(시·군·구별 1개소 이상) 확충·운영
 - 원격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

□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

- (학교) 유·초·중·고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로 강화
 - '장애인의 날'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수업 실시 확대
 - 일반학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'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' 운영
 - ※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지원 학교 수: ('18~'22) 1,190교
- (국민) 관계부처 협업으로 TV, 대중교통, 언론매체, SNS 등을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
 - ※ '장애인의 날' 등에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가 아닌 상시적·지속적 홍보 추진
- (정부)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

□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

- 유관기관 연계 '장애학생인권지원단' 기능 강화

※ '장애학생인권지원단'이란?

- (구성) 관할경찰서 성폭력 담당자, 장애학생 보호자,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등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

※ '17년 현재 전국 201개 인권지원단(총 2,247명)에 334명의 경찰위원이 필수위원으로 참여

- (역할) 현장지원(정기/특별), 교육 및 연수, 협의회 운영, 우수사례 발굴·홍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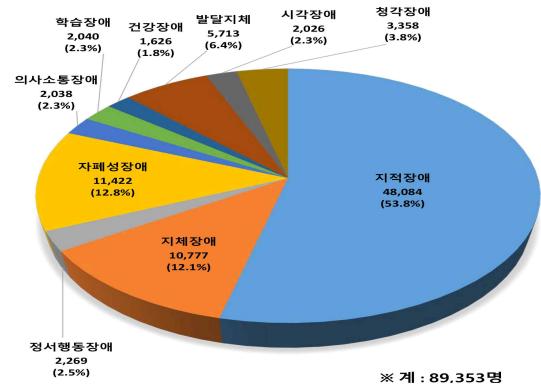
- 특수교육기관과 관할 경찰서 등의 협력을 통해 현행 정규 교육과정 내 국한된 역할을 방과 후까지 확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(성)폭력 피해 예방
-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 포함
-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(기관) 연계 강화
 - ※ 산모수첩, 영유아 건강검진 등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한 홍보 강화
-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조직 확대
 - 교육부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1과 1팀으로 확대하고, 시·도 교육청 역량 강화 지원 확대

□ 특수교육 주요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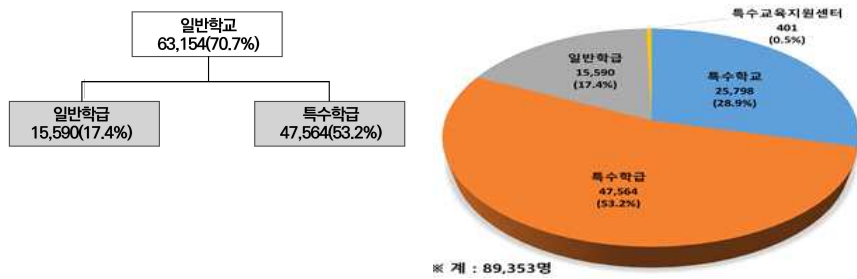
배치별			특수학교	일반학교		특수교육 지원센터	계
				특수학급	일반학급 (전일제통합학급)		
특수교육대상자 수			25,798	47,564	15,590	401	89,353
학 생 수	장 애 영 역 별	시각장애	1,307	267	439	13	2,026
		청각장애	819	691	1,828	20	3,358
		지적장애	14,379	29,490	4,166	49	48,084
		지체장애	3,858	3,895	2,916	108	10,777
		정서행동장애	229	1,361	679	-	2,269
		자폐성장애	4,747	5,925	749	1	11,422
		의사소통장애	88	1,126	824	-	2,038
		학습장애	15	1,374	651	-	2,040
		건강장애	33	128	1,465	-	1,626
		발달지체	323	3,307	1,873	210	5,713
		계	25,798	47,564	15,590	401	89,353
	학 교 과 정 별	장애영아	148	-	-	401	549
		유치원	948	2,763	1,726	-	5,437
		초등학교	6,856	22,400	6,249	-	35,505
		중학교	5,585	10,256	3,377	-	19,218
		고등학교	7,489	11,928	4,238	-	23,655
		전공과	4,772	217	-	-	4,989
		계	25,798	47,564	15,590	401	89,353
학교 및 센터 수			173*	7,799	7,622	199	11,306
			10,934				
학급 수			4,615	10,325	14,650	74	29,664
특수학교(급) 교원 수			8,242	10,658	-	427	19,327
특수교육 보조인력 수			3,615	7,116	439	-	11,170

* '17.9.1.자 서울효정학교 개교로 현재 174교 운영 중

□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



□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



□ 특수학교 현황

설립별	국립	공립	사립	계
학교 수	5	76	93	174
학급 수	168	2,456	1,991	4,615
학생 수	853	13,874	11,071	25,798

□ 특수학급 현황

과정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전공과	계
학교 수	714	4,192	1,811	1,065	17	7,799
학급 수	731	5,281	2,364	1,916	33	10,325
학생 수	2,763	22,400	10,256	11,928	217	47,564